

광주, 첫 상대는 포항... 이기세로 AFC 챔스 가자!



파이널라운드 일정 확정... 홈 2·원정 3 등 총 5경기
27일 포항 원정... 11월 1일 울산서 리그 마무리
광주, 유일하게 포항에 무승... '다공' 축구 전략

광주FC가 '포항진크스 탈출'을 외치며 K리그 1 2020 파이널 라운드에 돌입한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이 22일 하나원큐 K리그 1 2020의 파이널 라운드 일정과 대진을 확정해 발표했다.

오는 26·27일 시작되는 23라운드부터 10월 31일·11월 1일 열리는 27라운드 최종전까지 각 팀은 5경기씩 치르게 된다.

'홀수라운드' 일정이기 때문에 1~3위 팀이 어드밴티지를 받아 홈에서 3경기를 치른다. 6위 광주는 홈 2경기, 원정 3경기로 파이널 라운드 일정을 소화한다.

'파이널A'의 최종 27라운드 3경기는 11월 1일 오후 3시에 일제히 Kick오프된다. '파이널B'의 최종 27라운드는 앞서 10월 31일 오후 3시에 시작된다.

'파이널 A'에 진출한 6개 팀은 우승과 AFC 챔피언스리그 출전권 획득을 위한 경쟁에 나선다. '파이널B'에서 남은 시즌을 보내는 6개 팀은 '잔류 전쟁'을 벌이게 된다.

수원 삼성과 FC 서울이 오는 26일 오후 2시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가장 먼저 파이널 라운드 대결을 시작한다.

광주는 27일 오후 7시 포항스틸야드에서 포항스틸러스를 상대로 첫 파이널 라운드 경기를 갖는다.

창단 후 처음 '파이널 A'에 진출한 광주는 역사적인 첫 경기에서 '난적'을 만나게 됐다.

광주는 K리그에서 유일하게 포항과의 상대전적에서만 승리가 없다.

지난 6월 26일 안방에서 열린 9라운드를 통해 3년 만에 포항을 다시 마주한 광주는 이 경기에서 0-2패를 기록했다.

8월 8일 정규리그 15라운드 포항 원정에서도 후반 16분 펠리페의 페널티킥으로 선제골은 만들었지만, 후반 44분 고영준에게 동점골을 내주면서 포항전 '첫승'을 아쉽게 놓쳤다.

이와 함께 광주의 역대 전적은 6무 11패가 됐다. 기적처럼 '파이널 A'를 이룬 광주는 잔류에 성공한 만큼 '승리'를 위해 공격적으로 포항 골대를 두드리게 된다.

24라운드 경기는 홈에서 '달빛더비'로 전개된다. 광주는 10월 3일 오후 4시 30분 광주전용구장에서 대구FC를 상대한다.

이어 10월 18일 전주로 가서 전북현대와 오후 4시 30분부터 25라운드 경기를 갖는다.

10월 25일 광주전용구장에서 26라운드 상주전(오후 2시)을 치르는 광주는 11월 1일 울산으로 2020시즌 대장정을 마무리하게 된다.

한편 승점 2점 차 우승 경쟁 중인 1위 울산과 2위 전북은 10월 25일 26라운드에서 만난다. 포항과 울산의 '동해안 더비'는 10월 18일 25라운드 대결에서 볼 수 있다.

'강등전쟁' 중인 인천과 수원은 10월 4일 24라운드에서 운명의 대결을 갖는다. 최초로 파이널B에서 만나는 수원과 서울은 9월 26일 23라운드에서 슝스한 '슈퍼매치'를 벌인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광주 펠리페, 22R '베스트 11'

창단 첫 '파이널A'를 이룬 광주FC가 K리그 1 22라운드 베스트팀이 됐다. 펠리페(사진)는 베스트 11에 선정됐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22일 정규리그 최종라운드였던 22라운드 베스트 11을 발표했다.

상주와의 원정경기에서 선제골을 장식한 펠리페가 베스트 11에 이름을 올렸다. 광주는 펠리페의 선제골과 두현석의 추가골로 2-0 승리를 거두면서 기적처럼 '파이널 A' 마지막 티켓을 거머쥐었다.

K리그1 복귀 첫해 구단 사상 첫 파이널 그룹 A 진출이라는 쾌거를 이룬 광주는 22라운드 베스트



팀에 선정됐다.

한편 MVP는 상주전에서 헤트트릭을 장식한 포항 팔로세비치에게 돌아갔다.

팔로세비치는 안방에서 열린 상주와 맞대결에서 3골을 몰아넣으면서 포항의 4-3 승리를 이끌었다. 포항은 이날

승리로 상주를 밀어내고 3위 자리로 올라섰다. 포항과 상주의 경기는 22라운드 베스트 매치에도 선정됐다.

/김여울 기자 wool@

K리그1 파이널라운드 '언택트 미디어데이'

내일 온라인 화상회의

하나원큐 K리그1 2020 파이널라운드의 시작을 알리는 미디어데이가 24일 '언택트'로 열린다.

이번 미디어데이에는 치열한 경쟁을 뚫고 파이널 A에서 경쟁하게 된 1~6위 팀(울산, 전북, 포항, 상주, 대구, 광주)의 감독과 주요 선수가 참석한다.

코로나19로 인해 행사는 '온라인 화상회의의 형태'로 열린다.

서울 아산정책연구원 대강당에 마련한 특별 스튜디오와 6개 팀의 홈경기장 또는 클럽하우스를 인터넷 화상회의의 방식으로 연결하는 방식이다.

또 사전에 K리그 취재기자들로부터 접수한 질문과 K리그 공식 인스타그램(@kleague) 댓글을 통

해 받은 팬 질문에 답을 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특설 스튜디오에는 각 구단에서 감독과 대표 선수 1명씩 출연한다.

광주에서는 K리그2 우승에 이어 구단 첫 '파이널 A'를 이끈 박진섭 감독과 주장 여름이 참석한다.

파이널 미디어데이는 1시간 20분가량 진행될 예정이며, K리그 공식 유튜브 채널(youtube.com/withkleague)과 네이버, 카카오톡, 아프리카 TV, 트위치를 통해 생중계된다.

연맹 관계자는 "작년 파이널 미디어데이가 대규모 팬초청 행사로 진행된 데 반해 올해는 코로나 방역 차원에서 언택트 화상회의의 형식을 차용했다. 현장에서 함께 하지 못하는 미디어와 팬들의 아쉬움을 영상으로나마 달랠 수 있도록 온라인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김여울 기자 wool@

손흥민, BBC '베스트 11 공격수'

사우샘프턴전 4골 폭발

1골 4도움 케인은 명단서 제외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에서 사우샘프턴을 상대로 4골을 몰아친 손흥민(28·토트넘 홋스퍼)이 영국 BBC '이주의 팀'에 이름을 올렸다.

손흥민의 4골을 모두 도우며 1골 4도움을 작성한 해리 케인은 명단에 뽑히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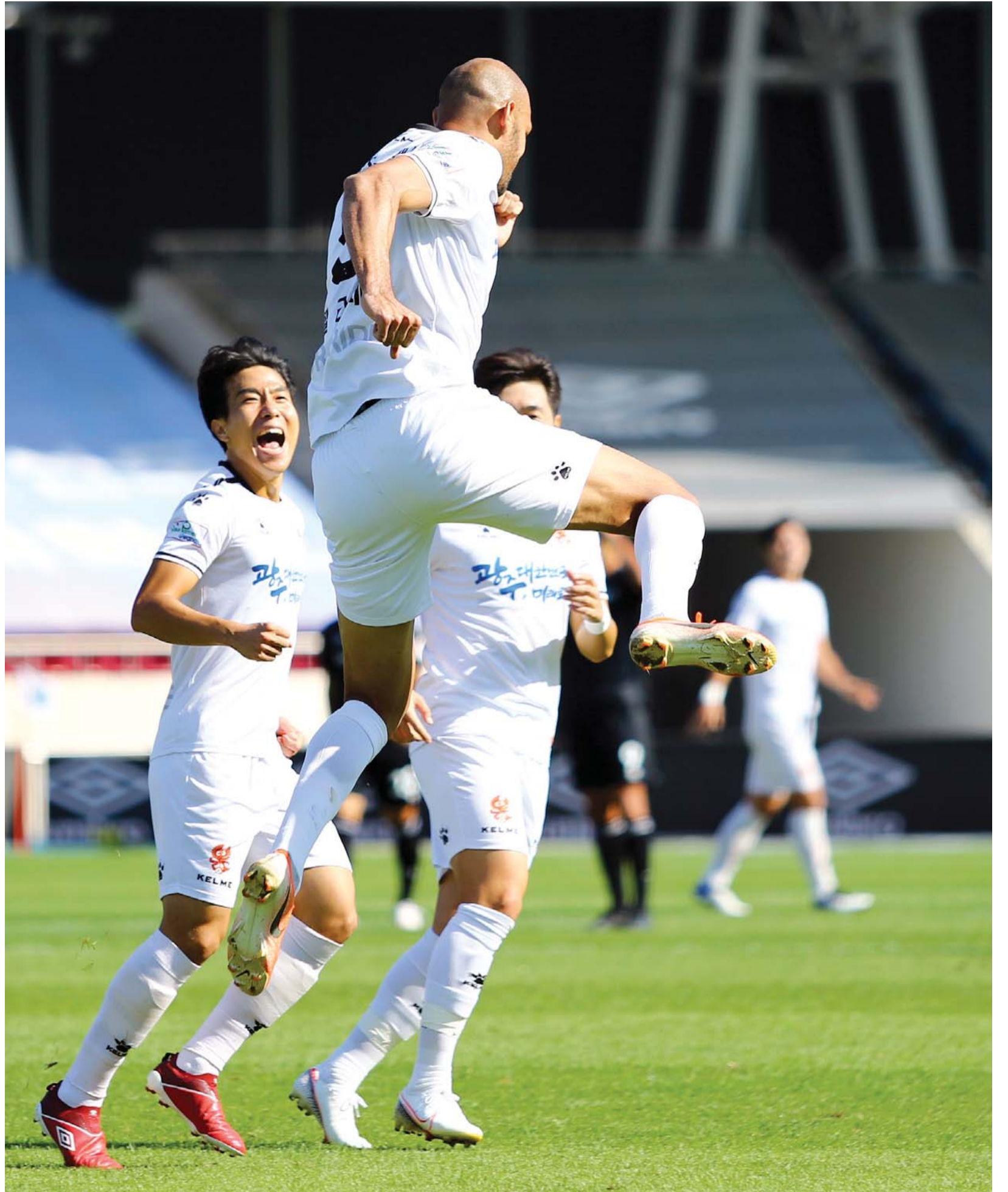
BBC가 22일(한국시간) 발표한 '가스크루스의

이주의 팀'에서 손흥민은 사디오 마네(리버풀), 도미니 칼버트-르윈(에버턴)과 함께 베스트11 공격수로 선정됐다.

손흥민은 20일 사우샘프턴과의 2020-2021 EPL 2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시즌 첫 골을 포함해 헤트트릭을 넘어 무려 4골을 폭발하며 토트넘의 5-2 역전승을 이끌었다.

2015년 8월 토트넘에 입단한 그는 5년 만에 EPL 경기에서 첫 헤트트릭을 작성하고 자신의 정규리그 한 경기 최다 득점 기록도 세웠다.

/연합뉴스



AFC 챔스 앞으로 돌격~ 광주FC의 펠리페가 포항전 첫승이라는 목표를 위해 공격 전면에서 선다. 사진은 지난 20일 상주상무와의 원정경기에서 골을 넣은 뒤 점프를 하며 기뻐하는 모습. <광주FC 제공>

브룩스, 美 가족 교통사고에 긴급 출국

부인과 자녀 두명 탑승 차량 사고
KIA 구단, 특별 휴가
마운드 재편 불가피
선수단, 모자에 패유 기원 문구



"날개가 있으면 바로 날아가고 싶다." 날아가고 싶은 정도로 간절한 마음, KIA 타이거즈에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다. '에이스' 브룩스가 22일 급히 미국으로 가는 비행기에 올랐다.

이날 미국에 있는 브룩스의 가족이 신호 위반 차량에 교통사고를 당했다. 사고 차량에는 부인과 3살 된 아들, 아직 돌이 지나지 않은 딸이 타고 있었다.

KIA는 브룩스에게 특별 휴가를 주고 최대한 빨리 가족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급히 비행기 티켓을 구매하며 애를 썼다.

하지만 먼 길을 가야 하는 브룩스에게는 1분 1초가 천년처럼 길게 느껴졌을 시간이었다.

경기 전 브룩스의 소식을 전한 윌리엄스 감독은 "브룩스와 그의 가족들에게 좋지 않은 상황이다. 심각한 사고였고, 부상이 발생했다. 지금 브룩스는 미국으로 돌아가는 길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브룩스의 시즌 아웃은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 오늘 아침에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결정할 상황이 아니다"며 "팀이 한마음으로 격려하



는 게 브룩스를 위한 길이다. 야구보다 훨씬 중요한 것들이 많다"고 안타까운 심정을 전했다.

팀을 이끄는 지도자이자 가장이기도 한 윌리엄스 감독은 '가장'으로서의 아픔도 공감했다.

윌리엄스 감독은 "멀리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픈 것을 버텨내기 쉽지 않을 것이다. 오전에 브룩스가 통화 중에 '날개가 있으면 바로 날아가고 싶다'고 말했다는 정도로 힘들어했다. 가장으로서 아내와 자녀들을 챙겨야 하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아무 것도하기 쉽지 않다"며 "팀에서 최대한 가장 먼저 출발하는 비행기로 마련했다"고 말했다.

갑작스러운 안타까운 소식에 KIA는 내일을 생각

할 겨를도 없었다.

브룩스 대체 선수에 대해서도 결정하지 못한 KIA는 일단 이날 김현수를 콜업했다.

순위 싸움도 싸움이지만 '하나'가 되어 똘똘이 자 가족인 선수들에게는 브룩스의 아픔이 먼저였다.

특히 그의 가족은 미국 플로리다 캠프에서부터 브룩스와 함께하면서 선수단과 각별하게 지냈다. 캠프가 끝난 뒤 함께 입국해 한국문화를 경험한 가족은 지난 여름 다시 미국으로 돌아갔다.

KIA 선수들은 이날 모자에 브룩스 가족의 패유를 기원하는 문구를 적고 그라운드에 올랐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